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총평

○1차 심의

- 일시 : '15.1.21(수)~1.22(목)
- 장소 :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 문학책임심의위원 추천 장르별 심의위원 22명

○2차 심의

- 일시 : '15.3.31(화)~4.1(수)
-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 심의위원 : 문학책임심의위원 및 추천위원 11명

○3차 심의

- 일시 : '15.6.26(금)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 문학책임심의위원 5명

올해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에는 시 383건, 시조 58건, 소설 197건, 동시 86건, 동화 123건, 수필 71건, 희곡 24건, 평론 17건 총 959건이 신청·접수되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우선순위에 두었던 부분은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 문장의 정확성 그리고 안정적 구조였다. 이는 문학작품의 기초로 기본기가 탄탄한 작가에게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소재의 작품이 많았고, 전개방식 또한 아쉬운 점이 많았다. 형상화에 실패한 작품들은 작위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많은 지원 수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이 많아 보통의 심의보다 오랜 기간을 고심하였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시와 소설외의 시조, 동시, 동화, 수필, 희곡, 평론의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는 점이다. 문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다양한 장르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학의 여러 장르에서 차별화된 문법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내는 것이 한국문학의 도약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심의결과,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총 102명이 2차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시와

소설분야 선정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문학계의 현황과 지원신청 비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 소설 분야 외 타 분야 작가들의 창작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신청이 요구된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작가들의 활발한 집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문학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다. 동 창작기금사업을 통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선정된 작가들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위원 일동